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

신종위험관리 분야의 선두조직을 목표로

“기존 재물보험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위험관리 업무를 제조물책임위험 등 배상책임 위험관리와 행사취소보험, 인터넷
관련보험 및 금융종합보험 등 신종위험에까지 확대하여 이에 대한 R&D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



최근 국내보험시장은 개방화, 국제화 등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위험관리 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물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신종위험에 대한 연구 및 방재기술 개발 등 R&D 업무 강화를 통해 독자적인 업무분야를 개척하여 향후 위험관리 분야의 선두조직으로 우뚝 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회 사 현 황

196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로 시작한 동부화재는 1976년 현재 자동차종합보험의 효시인 자동차 무한보상을 담보로 하는 차주배상 책임보험을 국내 최초로 개발·판매하였으며, 1995년에 현재의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동부화재는 국내 최고의 노후우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을 비롯하여 장기손해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개인연금 등 손해보험 전 종목을 취급하는 종합 손해보험회사로서, 탁월한 재무건전성과 높은 수익성, 뛰어난 사업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의 보험사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M. Best로부터 4년 연속(2001~2004) A-, Excellent 등급은 물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2003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손해보험부문 1위 등 많은 수상경력을 기록하였다.

올 2005회계연도에는 성장을 위한 사업역량을 확충하고 경영기초에 대한 혁신 심화, 자율혁신활동 활성화를 통해 시장점유율 업계 2위를 달성하고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1,200억 원대로 늘리며 고객만족도에서 1위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동 부 화 재 위 험 관 리 연 구 소

1986년 10월에 생겨난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는

당시 위험관리서비스팀으로 출발, Total Risk Management Service 제공을 위하여 부서 명칭을 2004년 8월 위험관리연구소로 변경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위험관리 기술 확보와 21세기를 선도하는 위험관리전문가로 구성된 위험관리연구소”라는 비전 아래,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해 위험관리컨설팅 및 현장실사를 통한 신뢰성있는 언더라이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8월 손해보험업계 위험관리부문에서 최초로 ISO9001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신뢰 및 만족이 국제적 기준에도 적합한 수준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최근에는 지층구조 및 상태, 지하매설물 위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최첨단 지반탐사장비 GPR과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장의 안전진단 및 보험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컨설팅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공장화재보험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언더라이팅 서베이를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 화재보험공장 전 물건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시행하여 전년대비 15% 이상의 개선을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는 타 위험관리업체와 달리 대형물건 또는 특수위험이나 신종위험에 대하여 언더라이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기존에 재물보험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위험관리

업무를 제조물책임위험 등 배상책임 위험관리와 행사 취소보험, 양식장보험, 인터넷 관련보험 및 금융종합보험 등 신종위험에까지 확대하여 이에 대한 R&D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력 현황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는 2과 체제로 구성, 건설일반, 석유화학, 전기, 전자 등 산업분야별로 나뉜다. 총 14명의 전문화된 직원이 국내 구석구석을 다니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터라, 섬으로 출장 갔다가 태풍에 발이 묶이는 등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한다.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의 자랑거리는 바로 전문인력 양성에 있다. 13명의 직원이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등 각종 보험 및 기술 관련 자격증과 CPCU(Chartered Property Casualty Underwriter, 1명), ARM(미국공인위험관리전문가, 4명), CFEI(공인화재폭발조사자격) 등 해외자격까지 총 34개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1인당 2.6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위험관리연구소의 자격증 취득은 2001년부터 전 부서원이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업무종료 후 함께 공부

한 결과로서, 대외적으로도 직원들의 능력을 인정받아 경찰청 화재사고에 대한 수사 자문위원으로 전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에 바라는 점

협회에서 제공하는 안전점검 언더라이팅 데이터와 자료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는 “협회의 위험관리 교육과정도 보다 다양하고 실무중심으로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의 연수프로그램 등을 국내에 소개하고 손해보험회사 및 방재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인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기를 희망하였다.

위험관리 업무는 보험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보험 업무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및 사고의 방지와 손해를 경감시킬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종위험 분야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가 그 역할을 잘 소화해 내어 앞으로 위험관리 분야의 최고봉으로 자리잡는 달콤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

